

# 우리 문학, 해외에 얼마나 소개됐나

## INTERVIEW

### 진형준 한국번역문학원장

**'문학 번역은 나라 안팎 문화의 통역'**

**작가·작품 교류로 범용의 지구촌 인식체계 공유**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소개 '한국의 책 100' 번역 자부**

우리 문학을 번역하고, 이를 바깥세계에 알리는 것. 이는 한국 문화의 영토를 넓히고, 보편의 지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진형준 한국번역문학원장은 그 당위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 현실에 대한 쓴소리부터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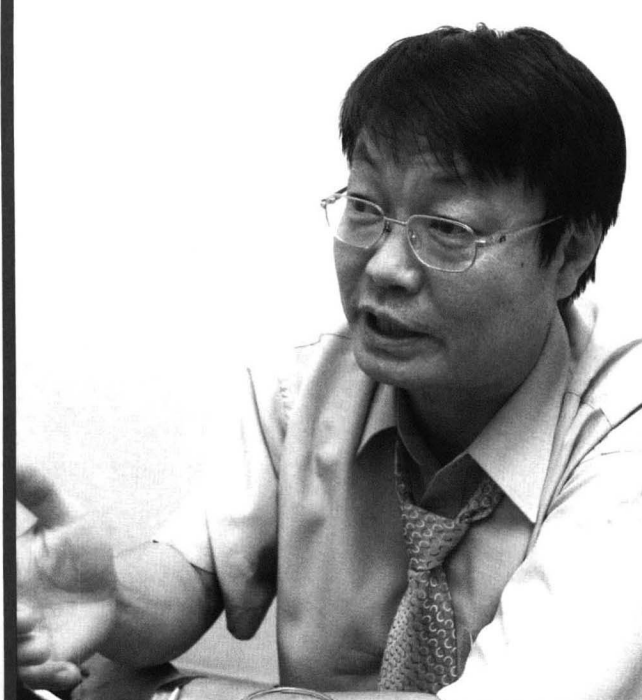
"우리 감각의 국제화와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노력을 그동안 우리 게을리했어요. 남에게 나를 알리며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마치 '우리 알기 금지'를 자행해 온 것이나 다름없어요."

확신 때문일까. 작금의 문화적 풍토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성토'에 가까우리 만큼 톤이 높다. "나와 남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지적·문화적 성숙을 위한 기본적인 덕목"임을 주장하는 그가 한국번역문학원장을 맡은 지 이제 2년 6개월. 그 기간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실을 교정하는데 헌신해온 나날임을 자부하고 있다.

'우리 알기 금지' 빗장 풀기...우여곡절 끝 '한국의 책 100' 번역 완수 그는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가 선사할 문화적 과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통과 이해를 통해 우리 문학과 문화가 세계를 향해 열린 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런 뜻에서 지난해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한국의 책 100' 선정·번역사업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세계인에게 널리 소개될 100권의 책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과연 뜻대로 될까?'란 회의적 시각이 주변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기보다, '돼야 한다'는 신념 비슷한 것이었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선정기준에 대한 온갖 말이 떠돌았다. 저자와 출판사, 번역자 3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정 도서를 교체하는 등 진행과정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해냈다"고 뿌듯해한다. 사업 시작 1년 6개월 만에 80여 권가량의 번역을 끝내는 등 본래의 도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내 작가들과 해외 우수출판사를 이어줌으로써 세계를 향한 우리 문화의 교두보를 구축한 셈입니다. 작품을 번역하고 이질 문화권에 이를 소개하고, 당사자인 작가들 상호간에 국경을 넘어 교류·소통케



했다는 점도 의미가 큼니다.”

어쩌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둔 가장 큰 성취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사업 성공을 위해 애쓰고 힘을 모은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말에서도 의례적인 수사 이상의 감격이 묻어난다.

#### ‘번역은 국제적 감각의 어른 되기 위한 작업’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란 모토를 실현키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 지원, 한국 문학과 관련된 국제교류사업의 기획과 추진, 번역전문인력육성, 번역가 워크숍, 한국문학 연구 지원, 사이버 한국문학관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진 원장은 “‘우리 알기 금지’의 빗장을 풀어헤치고, 우리 문학을 다시 깨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소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긴 우리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며, 문화적 배경을 외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관 사업의 취지는 곧 진 원장 자신의 문화적 신념이기도 하다.

“문학 내지 문화가 나라 안팎으로 소통함으로써 한국인의 느낌과 생각이 세계인의 그것과 교집합적 조우를 이루게 됩니다. 이젠 곧 우리 문화를 다시 가꾸는 일이기도 하죠. 나아가선 성숙한 세계 문화의 한 주체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곧 ‘어른’ 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남다른 해석을 가하기도 했다. 해외의 선진 지성세계와 출판·저작물을 통한 피드백을 이루는 가운데, 지구촌 범용의 인식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노벨상 콤플렉스’ 극복해야...유능 번역가 양성 주력

문학번역과 해외진출을 얘기할 때 으레 떠오르곤 하는 게 노벨문학상이다. 그러나 진 원장은 그런 ‘노벨문학상 콤플렉스’에 대해 통렬한 공박을 서슴지 않았다. ‘노벨상’ 자체를 염두에 둔 듯한 문학 행위에 대해 “천박하고 기만적”이라고까지 했다.

“더 이상 그런 ‘문화적 촛대’를 내지 않았으면 해요. 가치전도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학은 문학에 그쳐야 합니다. 정히 의도하자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수단에 그칠지언정, 그걸 위해 문학이 충성해선 안 되죠.”

물론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문학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로지 사해동포적 ‘마인드’로 글을 쓰고, 작품 의제를 설정해 세계인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역설적으로 그런 ‘기당찮은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서도 ‘번역 문화’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뛰어난 자질의 번역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외교통상부나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우리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 각국의 다양한 문학을 내국인들이 두루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효용을 높이는 일입니다. 총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기도 하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원활한 ‘통역’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그런 일을 해나갈 겁니다. **▶**

취재\_박경만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주빈국, ‘기관지원’에서 ‘상품’으로 인정 받는 계기

### 1980년대 이후 본격화...

### 한국 인지도와 번역 문화 변수

김윤진\_한국문학번역원 사업2팀장

1889년 미국 푸트남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 민담집》, 1892년 홍종우와 로니Rosny가 공역한 《춘향전》을 시작으로 한국문학작품이 해외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 어언 백 년이 넘었지만,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품은 많지 않다. 일본과 중국이 노벨상 수상작가라는 세계적 인지도를 얻은 작가들을 배출한 것에 비하면, 그 두 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권역에 속한 한국문학에서 그와 같은 작가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여러 모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무지와 무관심이 장벽

이는 한국전쟁,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태권도 등을 제외하면 거의 한국에 대해 모르거나, 한국문학 심지어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체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태반일 정도로 한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작용한 탓이다. 또 한국문학을 자국에 소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국인 번역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 즉 문학 소개의 역사가 그 두 나라에 비하면 무척 짧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과 중세 봉건적인 사고가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 일본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국의 문화와 문학을 해외에 집중 소개하였다. 중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한국문학은 본격적으로 세계에 소개된 지가 사실 백 년은커녕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